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3년 11월 발행 (제 43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무료배부

나팔 HP: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권두 메시지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 예레미야

◎증 '예배 메시지를 통해서' E3

◎알림 코너 '계시록 세미나'

<권두 메시지>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 BY 예레미야

오늘은,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다니엘서는 종말의 날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각각의 문장은, 제각각 종말의 날을 다른 면과 다른 각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구절, 다니엘서 11장은,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이라는 각도에서, 종말의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살펴봅시다.

<북쪽의 왕, 남쪽의 왕이라는 묘사>

이 다니엘서 11장의 서술이 뜻함은, 제일로는 다니엘 때보다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 그리고 묘사입니다. 북쪽에 있는 그리스와 남쪽에 있는 이집트 등의 싸움이나 동맹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하고 미래의 역사는 이 문장에 예언되어 있는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이 문장 중에는 클레오파트라를 포함한 역사적 인물의 동향이

정확히 예언되어 있어 그 예언대로 역사는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것은 제일의 이유로서 성서의 표면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계시록 겉에도 안에도 문자가 쓰여진 것과 같이 두루마리로써 묘사되어 있듯이, 단순히 표면뿐만 아니라, 그 속뜻이 함유되어 있음을 압니다.

북쪽나라, 남쪽나라에 관한 제 2의 의미, 그 속뜻은 무엇일까요. 이 문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다, 시리아다, 이집트다 라는 나라이름을 기술하지 않고 일관하여 모든 역사는 북쪽나라, 남쪽나라라는 표현으로 묘사되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무언가 뜻이 있는, 숨겨진 뜻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숨겨진 뜻이란 과연 무엇이죠.

<신의 나라는 북쪽나라, 남쪽나라로 나뉜다>

이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구약성서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북쪽나라와 남쪽나라로 분열된 것입니다.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 by 예레미야

그리고, 신약성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도 그와 같이 2개로 분열됩니다.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의 분열이 그것입니다.

구약에서 북쪽나라인 이스라엘국은 우상숭배, 바알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노여움을 얻은 나라입니다. 또한 신약의 가톨릭도 마리아숭배, 교황숭배 등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에서의 북쪽나라는 가톨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서 이 다니엘서 11장의 숨겨진 뜻은, 종말의 날, 환난의 날에 있어서 북쪽나라, 즉 가톨릭과 남쪽나라, 즉 프로테스탄트의 동향에 관해 미래에 대한 예언, 그와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기초로, 다니엘서 11장을 살펴봅시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가톨릭의 침공 아래 환란시대의 도래, 적크리스도의 웅립이 있다>

다니엘서 11:25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이니라

다니엘서 11장에는, 증오스러운 자와 적그리스도의 설명 등이 있습니다만, 그 기술과 병행하여 북쪽의 왕, 남쪽의 왕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 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과의 전투, 비유적 의미로는 천주교, 개신교 사이의 분쟁과 주도권 다툼이 종말의 교회의 형편과 매우 상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양자의 관계를 잘 보면 북쪽의 왕이 남쪽의 왕의 나라로 쳐들어 간다, 그에 따라, 증오스러운 자가 생겨나고

적그리스도가 석권하는 등의 마지막 일련의 모독적 사건들이 진행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등장 등 모든 종말의 모독은 북쪽의 나라인 천주교가 전 세계의 그리스도 교회를 석권하는 와중에 이루어진다, 그러한 말을 하는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언젠가 천주교가 개신교를 지배하게 되어, 천주교의 온갖 이상한 교리가 개신교 교회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27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코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천주교와 개신교, 이 두 왕은 하나 식탁에 붙은, 즉 동일한 성찬식과 같은 예배를 갖게 됩니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언젠가 성공하여 개신교는 가톨릭과 같은 성찬식 같은 예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주교 모독적인 교리가 강제로 개신교 교회에 소개 된 그 교리 전세계의 교회가 통일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됩니다.

“11:30 이는 깃딤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거룩한 계약에 격분하여" 라고 쓰여진 대로, 북쪽의 나라, 즉 모독적인 천주교는 언젠가 하나님과 기독교인 사이에 맺어진 거룩한 계약에 격분하여 반대하고 적대시 하게 됩니다.

현재 이미 천주교는 그리스도와 기독교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에 반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즉,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도, 양심에 따라 행하면 구원된다는 등의 그리스도와 영원한 언약에 반하는 말들을 교황이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주교의 주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 결국에는 어디까지나 올바르게 그리스도와 의 계약을 지키려는,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이단시하여 핍박하게 되는 것, 그것은 "거룩한 계약에 격분하여" 라고 쓰여진 말씀의 의미입니다.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종말의 날, 천주교와 개신교가 합동한 교회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단시되고 박해됩니다. 반대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도 구원된다"는 등 모독적인 교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모독의 교회에서 그 죄를 무겁게 징수하게 됩니다.

"11:31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의 군대, 즉 어리석은 가르침에 따르는 천주교 신자들 때문에 '성소와 요새'는 오염됩니다. 성소, 즉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는

오염된 이단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상공의 제사"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예의 충실한 봉사과 기도가 교회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오스러운 자"가 성소에 놓여집니다. 증오스러운 자란, 적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는 교회를 망치는 가증스러운 존재입니다.

"11:33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 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패하리라"

천주교의 신성모독이 개신교 교회를 석권하는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오랫동안 칼에 찔리고 불에 태워진 포로가 되어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쓰러지게' 됩니다.

칼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있는 대로 말씀이나 교리의 예입니다. 많은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칼, 즉 천주교의 사기 교리에 쓰러져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은 즉 영의 예입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지다'는 천주교의 미혹의 영의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1:36 ○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를 것임이니라

11:37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여기에 쓰여져 있는 설명은 적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에게 대적하며" 즉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교회의 하나님인 그리스도보다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과 일치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2: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성전은 신약의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이며, 그 교회의 한가운데 그리스도가 앉아 있던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앉고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하나님인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모독 또한 죄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교회의 하나님의 자리에 다달아,

그들 모두는 북쪽의 왕, 즉 천주교를 기점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 11장에 북쪽의 왕이 석권한다고 쓰여진 진정한 의미입니다.

"11:39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외국 신의 도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의 이해로는 기독교에 있어서 외국의 신은 불교와 이슬람교라고 생각됩니다.

천주교는 이러한 이교도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올바른 기독교인들을 역으로, 종교적으로 비관용적인 사람들 등의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아 이단시하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의 천주교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북쪽의 왕이 남쪽의 왕과 싸우는 것,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 남쪽의 왕의 나라가 북쪽 나라에 의해 석권되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언젠가 성취하고 남쪽 나라인 개신교 교회는 천주교에 의해 침입되어 쓸려가는 것을 뜻하겠지요.

슬러가는 물과 상관있는 말씀이며 영적인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천주교의 이상한 영이 모든 개신교 교회도 장악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됩니다.

<천주교 주도의 박해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심판된다>

그리고 이 천주교에 의한 올바른 기독교인 박해, 석권의 날은 에스겔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겔 38:14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38:15 네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38:16 구름이 땅에 덮임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곡아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에스겔의 구절에서도 천주교의 올바른 개신교 신자들 핍박, 환란의 때를 북쪽으로부터의 재앙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와 환란 시대의 결말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38:18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38:22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떼와 그 함께 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38:23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천주교 주도의 박해, 환란의 시대는 주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 신성 모독 천주교의 사기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니엘서 11장의 포인트는 종말의 날의 환란 시대의 도래는 천주교의 개신교 통일, 장악 후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예언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여 이 시대에 대한 올바른 길을 걸읍시다.

- 이상 -



이교도 지도자와 대등 한 교황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렘넌트 그리스도 교회의 예배는 오전에는 신약부터 오후에는 구약부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하순 시편 25 편 메시지를 통해 훌륭한 가르침을 받아, 혼자만 아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 간증을 드릴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모처럼이니 그 부분의 말씀을 살펴 봅시다.

참조 시편25:4,5

"25:4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25:5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4절에서는 '길' 혹은 '작은 길'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시편 25편 전체는 '길'에 대해 쓰여져 있습니다. 어떠한 길인가 하면 '영생의 길'입니다. 또한 복음서에 '생명에 이르는 문은 작고, 그 길은 좁다'라고 쓰여져 있는 대로, 그 길, 즉 영생에 이르는 길은 좁습니다. 게다가 '그 길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어' 라고 까지 적혀 있습니다. 단순히 '좁은 길' 일 뿐만 아니라 '찾는 것조차 어려운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그리스도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상식과는 상당히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넓다'라고 까지 말하지는 않아도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면 천국에 갈 수는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교회의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설명하는 메시지를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 모두가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므로,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고, 그리고 찾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지만' '전무(全無)하지는 않으니까' 찾을 기회는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있어도 "그럼 누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25편의 말씀에 힌트와 답변이 적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고 나를 가르쳐주십시오" 이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설교 중에 가르쳐주신 것입니다만, "가르쳐주십시오" 와 같이, 만약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렇게 우리들에서 하나님에 물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생명에 이르는 길은 매우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하여 기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불행히도 남에게서 듣거나, 혹은 해설서나 교리 책에서 찾아내려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기도하여 듣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많은 것들을 통해 '생명의 길은 좁다'는 것은 다소나마 이해하여, 다음날부터 조속히 이를 실천해 보았습니다. 매일 기도 속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더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기는 고치는 편이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해 명료한 설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이 소중한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부터, 역시 시편 공부를 통하여, 다윗이 **"아무쪼록 내 숨은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어 ... 그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죄가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찮으시면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개로 이끄소서"라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이번 25편 말씀과 지금의 두 말씀이 차례 차례 겹쳐지고, 또한 성경에서 장려하고 있는 기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잘 맞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방향에 따라 오로지 걸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보충으로써 ... 미가 6장 8절에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오로지 걸어가기로 바로 부호하도록 생각합니다. 말씀에서 올바른 교리를 배우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욱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을 다해 걸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행보이고, 따라서 좁은 길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따르기 어려운 것을 지시 받아도 주님 뒤를 따라 가는가? 제대로 하는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먼저 하나님에게

제대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시를 받으면 제대로 회개 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땅에서도 축복과 은혜에 들어가 마지막까지 제대로 완수한다면 후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면 생각합니다. 반대로, 만약 그 것을 간구하지 않는다면, 아마 멸망의 커다란 문, 넓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꼭 생명으로 인도하는 작은 문, 좁은 길을 간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오류나 실수 그리고 실패가 많은 사람입니다만 ...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그리고 숨을 쉬는 동안에는 이 기도를 계속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과 자비와 힘과 지혜를 원하고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영광과 영예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 이상 -